

2016년 10월 23일, 안덕면 사계리 김여옥씨 댁, 문경미 조사.  
김여옥(남, 1918년생, 안덕면 사계리)

[조사자] 불미공예 하잖아예. 그것 때문에 영 뒤에 뭐 모시는 하르방 신이 있다 하는데, 들어봤수과?

[제보자] 귀신? 귀신은 덕수는 집 마당에 있다고 하는 거라.

[조사자] 그거 알아마씨? 그거 뭘 말이파?

[제보자] 그거 불미귀신. 불미는 솥불미. 솥 멘드는 거. 또 바깥데 보섭불미. 코쟁이난 거 갈아 가는 거. 또 흑을 놓지는 배. 그런 것들을 덕수뻘에는 멘드는 디가 없거든 제주도에서. 덕수 거 멘들아 현디. 우리 켜당도 덕수 사는디. 우리 켜당네 집에도 그 귀신을 워한다 허여. 귀신은 사람 눈으로 보진 못하는 거난게.

[조사자] 게난마썸.

[제보자] 경허난 그자. 밀고 덩기고 올려그네. 베에 헐 때는 영 허곡. 아무 때나 허진 안 허는 걸 거고.

[조사자] 거 무슨 귀신이렌 헤마씨?

[제보자] 거 불미귀신이엔 허는 거주게. 도체비.

[조사자] 도체비랜 허는 거 들어봤지예? 뒗하르방이라고는.

[제보자] 뒗하르방. 그게 그거주게. 송칩이. 덕순 송가가 많은. 진도 벵파진이랜.

[조사자] 무신 거마썸?

[제보자] 벵파진. 진도 벵파진이랜 현 지명 이름일 거라. 별이 귀신이 송칩에 왕 워한다는 말만 들었지 뭘.

[조사자] 김씨는마씨.

[제보자] 김칩인 불미귀신들 헐. 불미 허젠 허민 정성헤그네. 그디 밥도 헤 놓고 떡도 헤 낱 그저 올려낱 케우려뒗그네. 정성 올리는 거.

• 핵심어 : 불미귀신, 뒗하르방, 덕수리, 도체비, 불미, 진도 벵파진, 송칩, 김칩